

“45년 만에 다시 영산포읍으로”...나주시, 주민공청회 개최

영산포읍 명칭 회복 위한 주민 의견 청취



윤병태 시장이 주민공청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을 하나의 영산포읍으로 환원해 역사적 정체성을 되살리고 교육, 세정, 복지 등 주민 체감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들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본격적인 소통에 나섰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4일 영강동과 영산동, 이창동 통합에 따른 영산포읍 환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주요 추진계획과 분야별 혜택을 설명하는 한편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해 신정훈 국회의원, 김관용 나주시의회 의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나주시의원,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윤병태 시장과 신정훈 국회의원, 김관용 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영산포읍 환원 주요 추진사항과 주민 혜택에 대한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임언택 나주교육비행 TF 부위원장이 대학입시 제도 변화와 영산포읍 환원에 따른 교육지원 사항을 설명하며 주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정종도 시민행정교통국장 주재로 기구·정원, 정주·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시는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영산포읍 환원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교육·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지역 활성화에도 힘쓸 방침이다.

/서성택 기자

담양군, 추석맞이 고향사랑기부 이벤트 추진 ...

화순 능주고, 전국 학생 모의의회 공모대회 1위

담양군이 자매결연 도시인 미국 워싱턴주 린우드시와의 오랜 인연을 이어가며 양 도시 간 교류·협력을 확대한다. 담양군은 지난 3일 니코엘로(Nick Coelho) 린우드시의회의장 일행이 담양군을 방문해 양 도시의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니코엘로 린우드시의회의장을 비롯한 2명이 참여했으며, 방문단은 담양군청을 찾아 군 관계자들과 그동안의 교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담양군의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간 교류 방안을 논의하고,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며 담양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살펴봤다.

/강종연 기자

화순군(군수 임지락)은 지난 8월 26일 실시된 '2026년 전국 학생 모의의회 법률 제·개정안 공모대회'에서 화순군 학생4-H 연합회 소속인 능주고등학교가 전국 최우수 성적으로 1위를 차지하며 화순군 청소년들의 우수한 역량을 전국에 알렸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사회 전반의 다양한 현안에 관심을 갖고, 직접 정책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과 민주주의 원리를 체득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회는 청소년들이 사회 현안에 대한 정책 의견을 직접 제안하며 민주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남호경 기자

영광군, 호우피해 극복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총력

폭우 피해 전수조사 비상체제...공공·사유시설 피해 끝까지 확인



폭우 피해 전수조사 및 복구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영광군청 제공

상가, 농경지, 농업시설을 비롯해 도로·하천·배수시설 등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피해 발생지역이 광범위하고 농경지 침수와 시설물 피해 가운데 물이 빠진 뒤에야 확인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광군은 초기 신고된 피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읍·면별 현장 확인을 중심으로 피해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장 군수는 우선 각 읍·면장이 직접 책임자가 돼 마을 이장, 주민, 농업인 등과 함께 피해지역을 다시 확인하고, 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피해 신고 방법을 몰라 누락되는 주민이 없도록 마을 단위 전수조사 수준으로 피해를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도로·하천·교량·상하수도 등 공공시설뿐 아니라 주택·상가 침수, 농경지 유실·매몰·침수, 농작물 피해,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농축산시설, 소상공인 사업장, 어업시설 등 주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사유시설 피해도 빠짐없이 조사하도록 했다.

/김진기 기자

영광군이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조사와 복구지원에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3일 집중호우 피해조사와 관련해 긴급 특별지시

를 내리고, 각 부서와 읍·면에 “피해 규모를 축소해서도, 주민의 피해를 단 한 건이라도 빠뜨려서도 안 된다”며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을 망라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영광지역은 최근 짧은 시간에 기록적인 폭우가 집중되면서 주택과

장성군 “편백숲에서 어르신 몸과 마음 치유”

늘봄건강마을 우수 경로당 대상 ‘숲안에(愛) 힐링캠프’ 운영

장성군이 지난달 31일 국립장성숲체원에서 ‘늘봄건강마을 우수 경로당 숲안에(愛) 힐링캠프’를 운영했다.

올해 늘봄건강마을사업 우수 경로당으로 선정된 ‘충무2동 경로당’ 어르신 **명이 숲길 걷기, 향기 치유(아로마 테라피), 편백 발목 운동 등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했다.

체험 이후에는 늘봄건강마을 우수 경로당 인증패 수여식과 ‘건강바람 퍼포먼스’ 순서도 이어졌다. 어르신들은 ‘건강한 마을을 함께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바람개비를 들고 기념 사진을 남겼다.

‘늘봄건강마을’은 건강생활실천율, 비만율, 걷기 실천율 등 주요 건강지표 비교를 통해 선정된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를 펼치는 사업이다.

장성군은 △비만·영양관리 교육 △근력 및 균형 강화 운동 △건강걷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주민



장성군 늘봄건강마을 우수 경로당 어르신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스스로 건강한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건강지도자 양성교육도 진행했다.

충무2동 경로당은 프로그램 참여도, 건강 개선율, 건강지도자 활동 등의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올해의 우수 경로당으로 선정됐다. 이번 ‘숲안에 힐링캠프’는 우수 경로당에게 제공되는 장려 혜택

성격의 행사였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숲길 걷기와 자연 체험을 통해 어르신들의 심신 건강을 도모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늘봄건강마을 우수 경로당에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해 건강생활 실천을 독려할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